

## 조선후기 승려 권선문의 문체와 설득 전략\*

전선영\*\*

### <차례>

1. 머리말
2. 권선문의 개념과 승려문집 수록의 배경
3. 권선문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4. 권선문의 서술방식과 설득전략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간행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勸善文)을 대상으로 하여, 그 문체와 서술방식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불교계는 전란과 재해로 수행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사찰의 중창과 불사 추진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시주를 유도하고 불사의 정당성을 알리는 수단으로 권선문이 활발히 작성되었다. 권선문은 불사의 필요성과 시주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글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서도, 작성자와 수신자, 불사 대상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이 구사된다. 대부분의 권선문은 불사의 발원 동기, 대상의 가치, 보시 권유, 회향과 축원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개별 문헌에서는 경전 인용, 문답체 구성, 감응 중심의 서사 등 다양한 수사 전략이 활용된다. 특히 승려가 작성한 권선문에서는 요청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원의 마음을 서사화하며 신앙 공동체의 참여를 호소하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권선문의 작성자 다수가 실제로 불사를 주관했던 고위 승려들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며, 그들이 남긴 권선문은 개인의 문장력을 넘어 교단의 이상과 현실적 과제를 함께 반영하는 기록물로 기능하였다. 본고는 조선후기 승려문집 35종에 수록된 권선문 200여 편을 전수 조사하여, 불사 대상과 수신자에

\* 이 논문은 정각사학술원의 2025년 불교학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25년 5월 17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정각사학술원 연구원

따른 서술 방식의 차이를 살피고, 승려들의 불사 인식과 신앙적 태도가 글쓰기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권선문이 단순한 시주 요청문을 넘어, 불교의 교리와 현실 대응, 수행자의 신앙과 공동체의 실천 의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성격의 실용 산문으로서, 문학적 가치를 함께 지닌 양식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제어** 권선문, 모연문, 연화문, 승려문집, 불사

## 1. 머리말

조선후기, 전란의 여파와 자연재해라는 이중의 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불교계 또한 이러한 시대적 격변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사찰과 암자의 쇠락과 소실로 인해 수행과 교화의 기반 역시 크게 흔들렸다. 이로 인해 사찰을 재건하고 불사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이 때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 바로 ‘권선문(勸善文)’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sup>1)</sup>의 서술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권선문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교 권선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전적으로 부재한 것은 아니다. 권선문은 불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사원경제사 측면에서의 연구는 고려와 조선초기에 걸쳐 승려의 ‘연화활동’ 전개 과정과 실태를 사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2)</sup> 한편 개별 권선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원문과 번역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문맥에 따라 일부 가감하였음을 밝혀둔다.

2) 이병희, 「고려시기 승려의 緣化활동」, 『韓國中世史論叢』,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한

졌다. 대표적인 권선문은 세조대의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sup>3)</sup>으로 수결(手決)을 통해 불사에 왕실의 후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문본과 한글본이 각각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조선 전기 중세국어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 및 서예학 분야의 주목을 받았다. 「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勸善文)」<sup>4)</sup>은 설총의 후손인 정부인이 시아버지를 위해 광덕산 부도암을 중창하며 지은 글로, 회화와 서예 등 문화예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최창대의 「유점사중건모연문」<sup>5)</sup>은 승려의 청에 응하여 지은 글로, 대화체 전개를 통해 자성을 유도하는 논리 구조를 보여주며, 유가 권선문 연구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위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권선문의 내용보다는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드물었다. 한편 승려문집인 『기암집』의 연구에서 권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시도가 있다.<sup>6)</sup> 이는 산문 연구의 맥락에서 승려의 권선문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기암 법건의 권선문을 중심으로, 개별 작품의 서사 구조와 사상적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권선문을 문학 텍스트로 조명한 의의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별 연구의 성과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조선후기 승려문집 전반에 수록된 권선문을 대상으로 그 유형과 양상을 보다 넓은 범위

국중세사는총 간행위원회편, 2000; 변양근, 『조선 초기 승려의 연화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 김무봉, 「『상원사 중창 권선문』의 조성 경위에 대한 연구」, 『불교학연구』 30, 불교학연구회, 2011.
- 4) 이기병, 「〈설씨부인권선문〉의 조성 배경 고찰」, 『문화와예술연구』 17,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2021; 김대원, 「정부인 순창설씨에 관한 연구사 검토 및 그 과제」, 『서예학연구』 42, 한국서예학회, 2022.
- 5) 유정열, 「최창대의 <유점사중건모연문>연구」,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 6) 이대형, 「17세기 승려 奇巖 法堅의 산문연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권선문은 불사의 대상, 작성자의 사회적 지위, 시대적 요구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표현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양상을 함께 살펴볼 때 그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간행 35종의 승려문집에 수록된 200여 편의 권선문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향후 권선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sup>7)</sup> 이 작업은 방대한 권선문 자료를 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며, 심화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2. 권선문의 개념과 승려문집 수록의 배경

권선문(勸善文)은 불교계에서 불사(佛事)의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불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시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을 권하는 글로 불교에서 사찰건립·탑비조성·불상·범종·경판조조·기타 사회사업 등을 위하여 힘을 함께 모아 달라고 권장하는 글<sup>8)</sup>’로 정의할 수 있으며, 권문(勸文), 모연문(募緣文), 권화문(勸化文), 연화문(緣化文)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모연이란 인연(因緣)·법연(法緣)을 모은다는 뜻으로 불사에 인연 있는 이에게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며, 권선(勸善)은 좋은 일을 권한다는 뜻으로 불사와 관련한 일을 좋은 일로 지칭<sup>9)</sup>하

7) 본고에서 사용하는 권선문의 원문과 번역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문맥에 따라 일부 가감하였음을 밝혀둔다.

8) 이지관, 『佛敎大辭林』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9, 659쪽.

9) 이병희, 「고려시기 승려의 緣化활동」, 『韓國中世史論叢』, 이수건교수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 간행위원회편, 2000, 102~103쪽.

여 이를 권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권화(勸化)는 『증일아함경』, 『구사론』에서 비롯된 용어로 본래 불교적 용어가 한국에 전래되어 사용되다가 조선시대를 거치며 보편적인 의미의 선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sup>10)</sup>고 보기도 한다. 이들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불사를 위한 보시를 독려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명칭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기능과 목적이 동일한 글을 포괄하는 통칭으로서 ‘권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대적으로 가장 이른 권선문의 사례로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지은 「구화수대운사소(求化修大雲寺疏)」를 들 수 있다.<sup>11)</sup> 이 글은 당나라 시기의 사찰 증창을 위한 기록으로, 시주를 권하는 구조와 불사의 목적 측면에서 후대의 권선문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이처럼 권선문이라는 형식이 관습화된 문체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글쓰기 방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권선문은 명칭과 형식이 일관되지 않고, 작성자 또한 유학자와 승려 등으로 다양하여 그 양상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수록 문헌 역시 개인 문집과 사지(寺誌) 등에 흩어져 있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학계의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의 범위를 조선후기에 간행된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으로 한정하고 그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후기 승려문집의 구성 체계와 편찬 방식, 그리고 권선문이

10) 전영근, 「왕실 주관 불사 권선문의 조성과 운용」, 『서지학보』 30, 한국서지학회, 2006, 131쪽.

11) 유정열, 「최창대의 <유점사중건모연문>연구」,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86쪽 각주13을 통해 최치원의 『桂苑筆耕集』 16에 실린 「求化修大雲寺疏」을 우리나라 문인이 지은 가장 이른 시기의 모연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록된 배경과 의의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승려문집은 승려가 창작한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편찬한 문헌으로, 특정 주제나 목적 아래 저술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다양한 창작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엮은 것<sup>12)</sup>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도 승려들의 문집은 간행되었으나, 간행 주제나 수량 면에서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교리적 해설이나 법어 중심의 내용이 ‘어록(語錄)’이라는 명칭 아래 구성되는 형식이 일반적이었다. 고려시대 9명의 승려가 13종의 문집을 남겼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77명의 승려가 82종의 문집<sup>13)</sup>을 간행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단순한 수량 증가를 넘어, 승려문집의 성격과 편찬 방식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 승려문집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집의 명칭과 체제에서 드러난다. 고려시대에는 ‘어록(語錄)’이라는 표제를 사용하여 법어, 시, 공안 등이 혼재된 형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문집(文集)’이라는 명칭이 정착되며 유가 문집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sup>14)</sup> 청허 휴정의 『청허당집(淸虛堂集)』은 시(詩)와 문(文)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열하고, 문(文)에서는 기(記), 소(疏), 발(跋), 명(銘), 권선문(勸善文) 등 다양한 문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이후 간행되는 승려문집에 일정한 전형으로 작용하였으며, 실용성과 문학성을 함께 갖춘 구성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12)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2014, 394쪽.

13) 조선시대 승려문집의 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이진우는 청허 휴정부터 82명의 승려, 87종의 문집으로 보았으며, 이에는 전하지 않는 10종이 포함된다. 이대형은 『한국불교전서』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84명, 92종으로 집계하였다. 최정이는 실물 확인이 가능한 문집만을 기준으로 하여 67명, 71종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불교전서』를 참고하되, 허응 보우 부터 금명 보정까지의 시기를 기준으로 77명, 82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한다.

14) 이진우,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7, 319~323쪽.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승려문집의 간행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교학의 융성과 불서(佛書) 간행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교단의 전통을 정비하고 문중의 권위를 정립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sup>15)</sup>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문집은 단순한 유고(遺稿) 정리에 그치지 않고, 교단의 이념과 역사를 보여주는 매체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법어(法語)는 불교의 이념과 특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문체로, 고려시대 문집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차 수륙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에는 유가와와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으나, 화두(話頭)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어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더 이상 시대의 언어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sup>16)</sup>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행 중심의 법어는 점차 수륙 비중이 줄어들고, 그 자리는 권선문(勸善文), 상량문(上樑文), 축소(祝疏) 등 실용 산문 양식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문집의 구성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당시 불교계가 직면한 현실적 요청이 문집 편찬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권선문이 이 시기에 중요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조선후기 불교계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찰을 운영하고 불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주가 절실했고, 이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글을 설득력 있게 잘 써서 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도(道)의 경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또 잘된 권선문을 많이 가진 문집일수록 그 작가는 능력 있는 승려로 평가되고 관련 있는 사찰이나 관련문중의 권위까지 향상되었다.<sup>17)</sup> 축소나 권선문은 개인적인

15) 이진오(1997), 위의 책, 331~333쪽 참조.

16) 이진오(1997), 위의 책, 322~323쪽.

글쓰기가 아니라 불사를 주관하는 대표성을 지닌 이가 맡는 것이므로 찬술자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17)</sup> 단순한 시주 요청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찰 운영의 지속성과 더불어 불교계 내부의 위계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글쓰기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닌다.

### 3. 권선문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권선문은 시주자에게 보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전달하는 목적을 지닌 글로, 이러한 목적의식은 제목 구성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권선문은 제목에 불사 대상과 그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만덕산 백련사 중창 모연문(萬德山白蓮社重荆募緣文)」과 같이 제목에는 대개 사찰이 위치한 지역적 범위와 구체적 대상의 명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시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과 장소가 제목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제목 구성의 전형성은 본문 서술에도 일정한 형식으로 이어진다. 권선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1) 불사의 발원 동기, 2) 불사 대상 및 가치, 3) 불교 교리의 정당화, 4) 시주 권유와 감응 서사, 5) 회향과 축원 등 다섯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작성자의 의도나 대상 불사의 성격에 따라 구성의 순서나 비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신도들의 신심을 환기하고 시주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 구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불교 교리, 특히 인과와 윤회에 대한 설명이다.

제목에 이미 불사 대상이 명시된 경우, 해당 대상이 화재나 노후 등으로

17) 이진오(1997), 위의 책, 328쪽 요약

18) 이대형, 「17세기 승려 奇巖 法堅의 산문연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345쪽.

훼손되었음을 언급하고, 그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근거로 재건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 진술과 당위의 차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선문 전체의 설득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재물 보시가 선업이 되어 장래에 복덕으로 회향된다는 불교적 인과론의 서술에 있다. 따라서 승려들은 이러한 교리적 서술을 통해 수신자의 행위를 유도하고, 보시 행위를 정당화하는 서술 전략에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권선문은 재물을 보시할 것을 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물은 속인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격(家格)을 유지해 가는 데 절실한 것이기에, 승려들은 재물보시를 권하는 나름의 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속인들이 그러한 명분과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면, 연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불교의 심오한 사상 철학보다는, 윤회나 인과와 같은 일상적인 신념이었다. 권선문은 이러한 인과론적 세계관을 통해 속인들의 삶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건드리고, 보시가 곧 복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영월 청학의 「통용권문」과 허백 명조의 「통용모연문」은 모두 제목에 ‘통용(通用)’을 명시한 글로, 특정 불사를 지칭하지 않은 글이다. 따라서 불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범용 권선문으로 이해되며, 실제 불사 대상이 삽입되기 이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서술 요소들을 정형화해 둔 사례로 볼 수 있다. 핵심 서술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는 오복(五福)을 누리며 영화롭게 사는 자들도 있고 육극(六極)을 겪으며 고단하고 괴롭게 사는 자들도 있다. 그게 어찌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런 허다한 고통과 즐거움의 과보를 공연히 받는 것이겠는가. ... 이것이 선의 과보가 아니라고 할 자 누구인가. 선을 닦은 과보가 이미 모두 자기에게 귀결되는

19) 이병희, 「고려시기 승려의 緣化활동」, 『韓國中世史論叢』, 이수건교수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 간행위원회편, 2000, 104쪽.

것이려면 불선의 결과 역시 어찌 다른 사람에게 가겠는가.<sup>20)</sup>

사람은 비록 가장 귀한 존재라 하나, 각기 지은 업(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며, 각기 그 과보(果報)를 좇아 천 가지 삶의 처지로 흩어져 살아간다. 그리하여 부귀와 천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이로부터 갈리고, 존비(尊卑)와 상하(上下)의 질서 또한 여기서 비롯된다. 그 가운데는 1품의 존귀한 신분으로 장안(長安)에서 장수하며 안락하게 사는 이도 있고,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도 있으며, 군대에 나아가 전쟁터에서 비참히 죽는 이도 있고, 고독하게 떠돌다 괴로움 속에 목숨을 마치는 이도 있다. 그 천태만상의 차이는 인과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이지, 다른 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sup>21)</sup>

이러한 통용 권선문은, 현실의 고난을 전생의 업보로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보시 행위가 곧 선업의 기회이자 장래 복덕의 전환점이 됨을 설득하는 서사를 중심에 둔다. 특히 이러한 인과론적 전개는 단순한 교리 전달을 넘어, 수신자로 하여금 자기 삶의 윤희적 구조를 자각하게 하고, 내세를 위한 보시라는 실천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는 권선문의 설득력을 구성하는 핵심 수사 전략이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필수적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권선문은 승려뿐만 아니라 유학자에 의해서도 작성되었으나, 작성자의 성격과 집필 동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학자가 작성한 권선문은

20) 詠月清學, 『詠月堂大師文集』, 「通用勸文」, “世有受五福而榮華者, 嬰六極而困苦者, 豈以全無所因而虛受如許苦樂之果報哉. 漂母一飯, 竟獲千金. 樵夫五錢, 終得大利. 施德書生, 果登甲科. 活螻童子, 短命還長. 此非善報而誰耶. 修善之報, 既皆歸於自己, 則不善之應亦何適於他人哉.”

21) 虛白明照, 『虛白集』, 「通用募緣文」, “其人之爲人也, 雖曰最貴, 而各隨其業, 稟類萬形, 各逐其報, 捫處千般. 豪賤智愚自此以發, 尊卑上下自此而作者. 至於一品尊榮, 而長安長樂, 或身纏病痛, 而呻吟苦亡, 或兵陣將卒, 而干戈苦死, 或孤獨踽行, 而抱苦歸魂. 千態萬狀, 因果不一, 皆因其夙世所作之業而使然也, 非餘人之所使也.”

대개 건축물 증창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경우 승려 측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글로 추정된다. 반면 승려에게 불사는 곧 수행의 연장선이자 생활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였던 만큼, 보다 절실한 동기에서 권선문을 집필한 경우가 많았다.

승려가 작성한 권선문은 크게 발심한 승려가 직접 회주로 나서 작성한 경우와, 타인의 불사를 지지하며 작성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불교 기문(記文), 특히 중창가나 창건기의 ‘몇 차례나 사양하였으나’, 혹은 ‘아무개의 청을 받아 글을 짓는다’는 식의 표현은 청탁자와 작성자 간의 일정한 위계 관계를 전제하는 서술 방식으로, 유학자들의 권선문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승려가 집필한 권선문에서는 청을 받았다 하여도 ‘○○산인이 권선의 뜻을 보였으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단월들의 동참을 바란다’는 식의 표현이 관례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권선문이 외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니라, 발원자의 불사 취지에 공감한 승려가 자발적으로 뜻을 알리고 호소하는 서사 방식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는 불제자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를 수행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함께 선업을 실천하려는 신앙적 연대의식과 동등한 책무의식을 전제로 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인 모(某)가 발심(發心)하여 탁발(托鉢)을 해서라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일은 거창하고 능력은 모자라서 혼자 이루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덕을 지으려는 분을 만나서 함께 불후의 공을 이루려고 하니, 선을 행하는 데에 뜻이 있는 분은 이 권선문에 이름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sup>22)</sup>

그래서 제가 이를 보수하여 창건한 공을 보조할 요량으로 먼저 바랑 속에 저축한 것을 꺼내 놓은 뒤에 제인(諸人)의 곳간 속의 재화(財貨)를 청하게 되었

22) 四溟惟政, 『四溟堂大師集』 6, 「開骨山興成庵造佛勸善文」, “山人某發心, 欲行乞而造成, 事鉅而德薄, 難以獨成. 欲見大功德之士, 同成不朽之功, 有意於爲善者, 請書斯文.”

으니, 일조(一朝)의 물건을 아끼다가 천재(千載)의 후회를 하는 일이 없게 하시면 무척 다행이겠습니다. 보응(報應)의 설이 달자(達者)의 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선악의 이치를 이미 위에서 설명해 놓았으니 여러 인인(仁人)들은 이 글을 보고 모두 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sup>23)</sup>

사명 유정은 권선문의 작성자이며 불사의 주체인 ‘모 산인’을 언급하며 발원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어 이 글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암 법건은 자신이 직접 발심자이자 회주로 나선다. 자신의 것을 희사(喜捨)하였으나 그것으로는 모자라기에 대중의 시주를 독려하는 흐름이다. 이를 통해 기암이 이 불사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과정중의 하나가 권선문의 작성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지막 문단의 ‘서명’이다. 현전하는 권선문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사(文辭)만 별도로 작성된 형태, 둘째 문사(文辭)와 시주질(施主秩)을 함께 수록한 장부의 형태, 셋째 통문(通文)의 형태이다.<sup>24)</sup> 시주질이란 불사에 참여한 후원자의 명단으로 보시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보시 내역을 기록해 둔 것이다. 이는 권선문의 기능이 단순한 설득이나 신앙적 권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확보와 불사 실행을 위한 실천 문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권선문은 이를 작성하는 주체와 그 글을 지니고 직접 사람들과 대면하는 이들을 구분하여 연화승(緣化僧)으로 불렀으며 문서를 통해 대면하는 활동을 연화활동이라고 하였다.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은 언뜻 단독 문사(文辭)로 여겨지지만 간혹

23) 奇巖法堅, 『奇巖集』 3, 「驪州象頭山長興寺重創勸善文」. “故予欲創修以補肇基之功. 先出囊中所貯之物, 後求諸人庫藏貲. 毋惜一朝之物, 以致千載之悔, 幸甚. 報應之說, 雖非達者之論, 亦不可不知也. 善惡之理已陳上項, 願諸仁人下眼斯文, 咸署冰御.”

24) 전영근(2006), 앞의 논문, 132쪽.

글의 후반부에 “이 권문에 꽃다운 이름을 서명해 주십시오(威署芳名於斯券)”나 “뜻을 같이하는 군자들은 이 글에 서명해 주십시오(志同君子, 請署斯文)”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권선문이 시주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름을 받아 적기 위한, 실천적 용도의 문서였음을 시사한다. 즉, 권선문은 원래 문사와 시주질이 함께 구성된 실천 문서였으나, 승려문집으로 편찬되는 과정에서 시주질은 대부분 탈락하고 본문만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주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던 권선문은 문집 수록 이후, 실천적 기능보다는 문체적 정합성과 표현상의 완결성이 부각되며, 문집의 편찬 목적과 체계에 걸맞은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간행된 승려문집에 권선문을 수록한 승려는 총 35인으로, 그 가운데 5~6편을 작성한 승려가 6명, 10편 이상을 남긴 승려는 10명에 이른다. 이처럼 권선문 작성이 일부 승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들이 사찰 불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거나, 문장 작성 경험이 축적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다수는 사적기(寺蹟記)나 중창기(重創記) 등 사찰 기문의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권선문 역시 단순한 요청문이 아닌 문체적 전통 안에서 가능한 기록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7세기에는 문중의 정통성 확립과 사찰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백암 성총(10편), 월저 도안(15편), 설암 추봉(12편) 등 부휴계·청허계의 중심 승려들이 대규모 불사를 주제로 권선문을 작성하였다. 이 시기의 권선문은 사찰 중창, 불상 조성, 교량 건립, 경전 간행 등 교단 차원의 장기적 과업을 설득하고 기획하는 성격이 강했다. 반면 18세기에는 무경 자수(13편), 연담 유일(11편), 몽암 기영(12편), 응운 공여(22편) 등 다수의 권선문을 남긴 승려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바라, 불기, 괘불탱, 가사, 등불 등 사찰 운영에 필요한 실용 기물과 일상적 장엄물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했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중반까지의 대형 사찰 복원 불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서, 이후 권선문이 점차 사찰 운영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권선문을 불사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승려문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간의 조성과 보수에 관한 것으로 사찰·암자(27), 법당·전각·누각(40), 석축(2), 기와(14), 교량(14), 단청(9) 등이 해당된다. 이는 불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역에 속하며, 규모나 상징성 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불상(15), 탕화·괘불(7) 개금·도분(6) 승탑·비석(6) 등은 건축 불사가 마무리된 후 내부 공간을 신앙적으로 장엄(莊嚴)하는 단계의 불사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종(4), 북(2), 바라(4), 불기(7), 술·시루 등 의식을 위한 기물을 마련하기 위한 것, 경전의 간행(12)을 비롯하여 수록재(4)나 무량회(2) 같은 의례를 위한 권선문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유학자들의 권선문이 주로 사찰·암자 등 건축 불사에 집중된 것과 달리,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은 사찰 운영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불사 대상이 보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물의 경우 건축물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짧은 내용으로 가볍고 유쾌하게 그려내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권선문은 수행자들이 이를 소지하고 직접 연화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 문체가 산문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을 문체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대체로 산문 형식이 중심을 이루기는 하나, 소(疏)와 사(辭), 명(銘)을 비롯하여 계(偈), 시(詩), 사(詞) 등 운문 형식으로 작성된 사례도 확인되며 권선문이 일정한 목적 아래 정형화된 틀을 따르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문체적 변용을 허용하는 장르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문체적 변용의 구체적 분석은 향후 별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4. 권선문의 서술방식과 설득전략

권선문에는 발심한 승려가 불사의 막중함과 자신의 미약함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모기가 산을 짊어진 일에 비유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이며, 우공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하고, 뜻은 대봉(大鵬)처럼 높지만 현실은 노래기가 황하를 건너야 하는 처지에 가깝다는 식의 묘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불사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발원자 개인의 한계를 전제하며, 수신자의 공감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권선문은 이처럼 발원자의 역량 부족을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공동의 실천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서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설득 방식은 감정적 호소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수용자의 성격과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설득 전략을 구사한다. 즉, 유학자나 승려를 대상으로는 경전 인용과 논리적 당위에 기반한 설득, 신도 및 민중 수신자에게는 감응과 공덕에 호소하는 감성적 전략이 주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각각의 전략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전 인용을 통한 방어적 설득전략

권선문은 불사를 위한 재원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유교적 지식인들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글이었다. 실제로 많은 유학자들은 불교가 윤회·인과·복전이라는 사상을 동원하여 백성들에게 시주를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세속의 자금을 불교계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권선문은 선제적 방어 전략을 서사 구조에 내재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답체의 형식

을 활용하여 비판을 예상하고, 그에 미리 논리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교 경전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거나, 유가적 가치 기준을 차용하여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자주 보인다. 이는 설득이라기보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가까운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학자 장유(張維)의 「복전설(福田說)」은 흥미로운 참조점을 제공한다.

처음에 내가 부도(浮屠;佛家)의 책을 보니 ‘사람이 제대로 불도(佛道)를 신봉하면 반드시 복전(福田)의 이익을 얻어 갖가지 일이 뜻대로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화(禍)를 받고 복(福)을 받는 것은 명(命)에 속한 일로서 명이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부도씨(浮屠氏)의 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늘의 명을 거역하고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신분이 귀해지고 명예가 드러나고 오래 살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처첩(妻妾)과 자손의 봉양(奉養)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이것을 얻게 되는 경우를 복이라 하고 이것을 잃는 경우를 화라고 한다.<sup>25)</sup>

권선문은 불교의 복전(福田) 사상에 기반하여, 보시를 선업의 실천이자 장래의 복덕을 가꾸는 인과적 행위로 설명한다. 그런데 장유는 불가의 복전 개념이 하늘의 명(命)을 거슬러 인위적으로 복을 유도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단순한 부정에 그치지 않고 복의 기준을 외적 조건이 아닌 ‘마음의 평안’에 두는 유가적 논리로 대체한다. 장유는 석가가 왕위를 버리고 고행 끝에 외롭게 죽었다는 사실을 들어, 복전 사상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25) 張維, 『谿谷先生集』 4, 「福田說」, “始余觀浮屠書, 言人能信奉其道, 必得福田利益, 種種如意, 不然者反是. 余心竊疑之曰, 禍福命也, 命在於天. 浮屠氏道雖大, 豈能違天之命而禍福人哉. 且世所謂福者, 不過貴顯壽富, 妻妾之奉, 子孫之養而已, 得此者謂之福, 失此者謂之禍.”

그는 복이란 궁극적으로는 외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득(自得)할 수 있는 내면의 안정과 평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유학자들의 복 개념을 대변함과 동시에, 권선문 수용에 있어 유교적 정당성으로 이를 거부했던 배경을 설명해 준다.

경(經)에 이르기를 ‘선한 일을 하면 온갖 상서로운 일을 내려 주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려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과거의 발자취를 가지고 말해 본다면, 안회(顔回)는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고 도척(盜跖)은 흥청망청 즐기면서 늙도록 살았으니, 이른바 상서로운 일을 내려 주고 재앙을 내려 준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sup>26)</sup>

장유가 「복전설」에서 인과응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곤궁하게 일찍 죽은 안회(顔回)와 부귀를 누리며 장수한 도척(盜跖)의 사례를 통해 “과연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받는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 불균형을 꼬집는 대표적 유학자의 시각이다. 그런데 기암 법견은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불교적 논리로 전환해 재해석한다. 기암이 작성한 권선문 중에는 유학자들이 던질 법한 질문을 서두에 배치하고, 그에 대해 조목 조목 불교적 논리로 응수하는 문답형 서술 구조를 가진 글이 많다. 이는 단지 권선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외부의 비판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권선문 자체의 정당성과 불사의 공덕을 변호하려는 전략적 서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권선문」에서, 한 선승이 사찰 중건을 위해 힘쓰다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을 소개하며<sup>27)</sup>, 선을 행하다 도리어 죽음에 이른 현실을 비판적으로

26) 張維, 『谿谷先生集』 4, 「福田說」, “經曰作善, 降之百祥, 作不善, 降之百殃. 以迹而言, 顔回屢空短命, 盜跖佚樂壽考. 安有所謂降祥降殃者乎.”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언급한다. “선방(禪坊)에서 선(善)을 행했으나 부처를 섬기는 길이 끊기게 되었다”는 조소 앞에, 기암은 “안자가 명을 누리지 못한 것이 어찌 덕행이 부족해서 이겠는가.”라는 반문을 던지며, 단선적 인과응보의 시선을 넘어서려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불교에서 말하는 다생의 윤회와 업보의 개념, 즉 현재의 결과가 반드시 지금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복덕의 집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교리에 바탕을 둔다.

기암은 이러한 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선이 지금의 복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함의를 통해, 유교적 인과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시야를 제시한다. 이는 권선문이 단순히 불사를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교리를 바탕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기암은 불사에 시주하는 행위가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뿐이라는 유학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 주장 자체가 단편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며 정면으로 반박한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유학자들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돌려세운다.

혹자는 “재물을 회사하여 부처를 받든다 해서 세상에 이로운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저 쓸데없는 일을 벌여 백성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말로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맹자는 “선을 좋아하면 천하를 다스리더라도 충분하다.”고 하였고 또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자는 성인의 제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사람을 속였겠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선을 행하기만 하면 하늘이 그에게 복과 수명을 내려 줄 것이니, 시주(施主)를 하면서 가난해지거나 요절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sup>27)</sup>

27) 奇巖法堅, 『奇巖集』 3, 「勸善文」, “前有禪僧祖奇者, 思欲重建, 鳩工聚材木, 幸忽被馮夷之怒, 暴落飢蛟之涎. 反以爲世人口實, 禪坊爲善, 竟無利益, 以沮事佛之路. 予雖苦口, 未由解迷也.”

이처럼 기암은, 유학자들이 불교의 복전론을 요설(妖說)로 간주하고 시주를 ‘회복을 미끼로 한 물질적 착취’로 치부하는 태도에 대해, 그들의 경전인 『맹자』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대응한다. 맹자 역시 ‘선(善)에는 복이 따른다’는 명제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기암은 바로 이 구절을 들어 유학자들이 스스로 신봉하는 도덕 철학이 불교의 시주 담론과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는 방어적 수사 전략이면서 동시에 반전의 설득 구조를 갖는 장치로서, 유가적 가치체계 내부의 언설을 끌어와 불교적 실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불사의 시주는 단순한 기복적 행위가 아니라, 유교적 선행 개념과도 상통하는 보편 윤리의 실천임을 부각시키며, 유학자의 논리를 해체한다. 승려들의 이러한 대응은 단지 유교적 언설을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대한 불교 교리의 체계를 먼저 정교하게 구축한 뒤, 그 위에 유교적 정당성을 덧붙이는 복합 서사 구조로까지 확장되었다.

월저도안의 「동산사 불상 개금공덕 공양 보시를 권선하는 글(東山寺佛像改金功德供養布施引勸說)」은 그러한 전략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 글은 불상 조성이나 개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 경전을 대거 인용한 글이다. 『조상경』, 『관불삼매경』, 『공덕경』, 『회엄경』, 『보장경』 등 수많은 경전에서 불상 조성이나 개금 보시에 연계 되는 복덕의 예를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용은 불사가 필요한 동산사 불상의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금으로 연계 된 공덕담’을 나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권설(引勸說)’이라는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기존의 권선문과

28) 奇巖法堅, 『奇巖集』 3, 「長安寺重創勸善文」, “或曰 捨財奉佛, 於世何有, 無乃徒事無益, 使民益窮乎. 曰 是何言歟, 子惟知其一, 未知二也. … 孟子曰, 好善優於天下. 又曰, 孜孜爲善者, 聖人之徒也. 豈欺人哉. 人苟爲善, 則天與之福而且壽也. 莫愁行施而貪天也.”

달리 다양한 경전에 나타난 영험 사례의 ‘인용’을 통해 불상 개금의 의미와 공덕을 설명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본문 전체에 걸쳐 실제 서술보다는 인용이 중심에 놓여있는 것도 이러한 구성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글의 후반부에서, 단순히 복덕의 나열만으로는 수신자의 납득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듯, “형상을 만들고 채색하는 이유”를 질문으로 던져 서술의 방향을 전환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부처님은 회신(灰身)으로 종지를 삼고 적멸로 즐거움을 삼는데, 어찌하여 형상을 만들어 시설하고 황금으로 채색하는 것을 일삼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옛 성인이 백성을 가르칠 때 보본추원(報本追遠)의 도로써 교화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제사를 올리는 예법에서는 사당에는 나무로 신주를 만들고, 제사에는 자손을 시동(尸童)으로 삼았다. 나무 신주나 자손 시동이 비록 진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서는 마치 살아 계신 듯이 섬기는 정성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부처님은 색상을 본질로 삼지는 않지만 색상을 여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쇠붙이나 나무, 흙이나 돌로 그 상호를 만들어 놓고 공경하는 이에게는 복이, 험뜯는 이에게는 죄가 그에 따라 응하게 되는 것이다.<sup>29)</sup>

이 가상 독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경전과 교리로 대응하지 않고, 성인의 보본추원(報本追遠)의 의례 전통을 끌어와 응답한다. 즉 근본에 보답하여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유가가 조상을 섬기듯 불교도 부처를 섬김에 정성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나무 신주나

29) 月渚道安, 『月渚堂大師集』下, 「東山寺佛像改金功德供養布施引勸說」, “或曰, 佛者以灰身為宗, 寂滅為樂, 奚以像設金彩為乎? 曰, 子不見, 古聖人教民, 報本追遠之道乎? 而於祭祀之禮, 廟則以木為主, 祭則以孫為尸. 木與孫, 雖非其真, 而非此, 無以致其如在之誠也. 況佛非色相, 而不離色相故, 以金木土石設相, 而敬毀之人, 罪福各以類應.”

시동이 진짜 조상은 아닐지라도, 형상을 통해 ‘마치 살아 있는 듯’ 섬기는 정성이야말로 진실한 공경의 방식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어서는 “청묘(淸廟)에 임하면 저절로 슬퍼지고 눈물이 난다”는 유교적 정서 구조를 끌어오고, 불상 조성이 불교적 감응 실천이자 유교적 예의에도 부합함을 강조한다. 권선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불교 경전이야말로 군자의 심성을 수양하고 선업을 갈고닦는 데 쓰일 수 있는 도구이며, 불교 담론을 유교적 윤리 실천과 조응시키는 수사 전략을 완결 짓는다. 결국 이 글은 방대한 경전 인용을 통해 불교적 정당성을 구축한 뒤, 유교 의례 담론을 보완적으로 끌어와 반론의 여지를 차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수신자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예상되는 비판을 미리 고려하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설계한 서술 전략이라 할 것이다.

## 2) 감응과 공덕 중심의 참여유도 전략

권선문은 일정한 목적과 형식을 공유하지만, 그 서술 방식과 수사 전략은 작성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한다. 동일한 불사 대상을 다루더라도, 누가 어떻게 서술했는가에 따라 문체와 어휘, 상징의 구성, 감정 호소의 정도 등이 달라지며, 이는 창작자의 불교 이해, 독자에 대한 인식, 창작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절에서는 동일한 불사 대상을 중심으로, 이를 다룬 여러 승려 작가들의 서술 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권선문이 공유하는 감응과 공덕 중심의 서사 전략과 그 안에서 전개되는 작가별 변주 양상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기와는 사찰 건축의 마무리를 이루는 공정이자, 불사의 종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권선문에서도 기와는 단순한 지붕 자재를 넘어서, 공덕의 성취와 불법의 안착을 상징하는 매개로 자주 서사화된다. 특히 ‘기와를 덮는 행위’는 건축 불사의 최종 지점이자 완성의 순간으로 제시되며, 전체 불사를 마무리 짓는 상징적 장면으로도 기능한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기와는 그 중요성이 쉽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붕을 구성하는 핵심 자재이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구조물이었기에, 기와 작업은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선 필수적인 불사로 인식되었다. 권선문의 제목에는 주로 ‘개와(蓋瓦)’가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부와(覆瓦)’나 ‘번와(燔瓦)’ 등의 표현도 나타난다. 이는 지붕을 덮는 공정 자체가 독립된 권선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부처를 믿은 자가 삿갓으로 부처님을 덮어드린 인연으로 오십 년간 천자의 지위를 누렸고, 부처를 믿지 않은 자가 기와를 허물고 흙벽에 금을 그은 죄로 오백 생 동안 벽려(薛荔)의 형체를 받았다.<sup>30)</sup>

이 삿갓 일화는 기와 권선문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설화로, 작은 덮음의 행위가 큰 공덕을 낳는다는 불교적 인과의 구조를 상징화한다. 청허 휴정은 「내은적 개와 모연문」에서 이 일화를 통해 기와 시주가 법계로부터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삿갓을 덮는 작고 단순한 행위가 거대한 과보로 이어졌다는 설정은, 작은 시주도 큰 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과적 확신을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이러한 감응 중심의 서사는 시주자에게 공덕의 차별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기와의 효능은 다대하다. 그러므로 집에 기와가 있는 것은 새에 깃털이 있고 짐승에 털이 있는 것과 같으니,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 그러므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나 기와를 입히는 것은 그 공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와의 효능을 기린의 털이나 봉황의 깃털과 견주는 것도 당연한

30) 淸虛休靜, 『淸虛集卷』 6, 「內隱寂蓋瓦募緣文」, “昔者信佛者, 以蘆笠覆佛之緣, 五十年享天子之位. 不信佛者, 以毀瓦畫漫之報, 五百生受薛荔之形焉.”

일이라고 할 것이다.<sup>31)</sup>

침굉 현변의 「내은암변와권선문」은 기와를 주제로 삼되, 감응이나 설화에 기대기보다 기와 자체의 효능과 물성을 강조하는 비유 중심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는 “기와의 효능은 다대하다. 집에 기와가 있는 것은 새에 깃털이 있고 짐승에 털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며, 기와가 건축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직유를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기와를 기린의 털이나 봉황의 깃털에 비유함으로써, 단순한 실용 자재에 상서로운 상징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서술은 기와를 단순한 건축 부자재로 취급하지 않고, 집의 존립을 보장하는 외피이며 보호 장치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시주 행위에 상징적 품격을 부여하는 효과를 지닌다. 침굉의 권선문은 인과 응보를 통한 감응 서사가 아닌, 기능과 상징의 결합을 통한 합리적 설득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집을 만들 때에 단지 장백(匠伯)의 공만을 말하고 와공(瓦功)은 말하지 않는다. 아, 그것은 또한 생각이 매우 단순한 것이라 하겠다. 커다란 집이 비록 크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긴 여름날의 모진 장마와 추운 겨울날 눈이 쌓일 때에 만약 기와로 지붕을 잊지 않으면, 대들보는 썩고 서까래는 기울어 얼마 못 가 집이 주저앉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와공이 장백의 공에 못지않다.<sup>32)</sup>

31) 枕肱懸辯, 『枕肱集』下, 「曹礪山內隱菴燔瓦勸善文」. “夫瓦之爲物, 其爲功也, 居多焉. 故家之有瓦也, 猶鳥之有羽也, 獸之有毛也, 不可相無也. … 故築室與燔瓦之功, 並行而不悖也. 以此言之, 燔瓦之力, 宜乎比乎鸞鳳之羽毛也. 信矣.”

32) 雪潭自優, 『雪潭集』下, 「蓋瓦勸文」. “創宇者, 只言匠伯之功, 而瓦功不與焉. 嗚呼, 其亦不思之甚也. 夫大厦廣室, 雖高且美麗, 九夏長霖, 三冬積雪, 若無蓋瓦, 則棟朽椽傾, 顛覆不占而知矣. 故余謂瓦功不在匠伯之下也.”

설담 자우의 「개와권문」은 기와를 부차적인 공정으로 여기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와 없이는 완전한 건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기와의 공이 장백에 못지않다”는 단정적 어법은 독자로 하여금 기와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고, 실제 사찰의 어려움과 감응설화를 덧붙인 구성은 실용성과 상징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권선문은 기와를 덮는 작업뿐 아니라, 기와를 굽는 일까지도 독립된 권선의 대상으로 삼았다.<sup>33)</sup> 기와 권선문은 규모나 장식성에서 두드러지지 않아 자칫 부차적인 공정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건축 불사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실질적 작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까래나 대들보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비바람을 막아 건물을 보호하는 핵심 자재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승려들은 기와불사에 있어서 기와의 물성을 활용한 비유와 실용적 논리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 눈에 띄지 않는 대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는 이러한 글쓰기에는, 시주자들의 불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히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특히 기와는 일정한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기물이었기에, 이와 같은 설명은 시주자들의 납득을 이끌어 냈을 것으로 보인다.

교량(橋梁)을 놓는 불사 또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등장한다. 다리는 사찰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교량 역시 불교의 복전(福田) 사상 안에서 수행자들이 감수할 만한 실천적 공덕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불설제덕복전경(佛說諸德福田經)』에 따르면, 부처님은 천제(天帝)에게 “복전이라 일컬을 만한 일곱 가지 널리 베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33) 枕肱懸辯, 『枕肱集』下, 「曹嶽山內隱菴燔瓦勸善文」; 栢庵性聰, 『栢庵集』, 「神興寺燒瓦窯勸文」. 특히 백암 성총의 권선문은 기존에 ‘기와 굽는 가마의 조성’으로 번역되었으나, 실제로는 가마에서 기와를 굽는 작업 자체에 대한 시주 요청으로, 불사의 대상은 설비가 아니라 행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는 다리를 놓아 노약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일<sup>34)</sup>이라 말한다. 이는 교량 건설이 단순한 기반 시설 조성이 아니라, 중생의 삶을 건네는 구체 행위로서 종교적 공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는 교량 건설 불사를 수행한 승려들의 권선문이 다수 남아 있었다. 정약용 또한 『여유당전서』에서 “예전에는 승려들이 이 일을 즐겨 하였고, 선배들의 문집에도 교량 모연문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승려들도 쇠잔하여 이 일을 할 자가 없다<sup>35)</sup>”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교량 권선문이 승려들을 통해 활발히 생산되었고, 그 전통이 일정 시기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들 교량 권선문은 불교 교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고사를 인용하거나 다리에 대한 의론을 전개하는 방식이 두드러지며, ‘어려움을 건너게 한다’는 교량의 상징성에 착목한 해석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동일한 고사를 인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용수연과 연담 유일의 것이 있다.

도강(徒杠)은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고, 여량(輿梁)은 수레도 통행이 가능하니, 여량의 다리가 좋을 것이다. 나무는 썩기 쉽고 돌은 부서지지 않으니, 돌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지개다리는 구멍이 둥글고 커서 큰물이 밀려와도 물의 충격이 작으니, 무지개다리가 좋을 것이다. 돌로 만들고 무지개다리로 하여 오래 건디도록 하려면, 이를 완성함에 수고와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니,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루 만에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sup>36)</sup>

34) 『佛說諸德福田經』, “부처님께서 천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곱 가지 법이 있는데, 널리 베푸는 것을 복전이라 부르니, 행자(行者)는 복을 얻어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무엇을 일곱 가지라 하는가?...다섯째는 교량을 안전하게 가설하여 어린이와 약한 이가 건너게 하는 일이다. (佛告天帝：復有七法廣施，名曰福田，行者得福，即生梵天。何謂爲七？…五者。安設，橋梁，過度羸弱.)”

35)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5집, 『政法集』 권27, <牧民心書> 권12 / 工典六條 제5조 (道路). “古者, 僧徒築爲此事, 先輩文集, 多橋梁募緣文. 今僧亦衰, 無能爲此.”

무용 수연의 「단교모연문」은 『맹자』에 나오는 도강(徒杠)과 여량(輿梁)의 대비를 활용하여, 좁고 취약한 다리와 넓고 견고한 다리 사이의 선택지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어서 나무와 돌, 평교와 무지개다리의 선택지를 통해, 누구나 이상적인 다리를 원하지만 그 실현에는 수고와 비용이 수반됨을 지적한다. 다리를 구축하는 일은 단지 건축 행위가 아니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공덕 수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鄭)나라 사람 자산(子産)은 자신의 수레로 나무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건네주었으니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화정(華亭) 선사는 낚시배를 끌어다가 나무터에 건네주었으니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두 일이 비록 세상을 구제한 것으로는 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는 그때에 바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때를 기다려 하였던 것입니다.<sup>37)</sup>

반면, 연담 유일의 「관동만세교중수문」은 같은 고사를 인용하면서도 자산과 화정 선사를 대비시켜, 구제 실천의 ‘시기’와 판단의 적절성에 주목한다. 연담은 실제로 목교와 석교를 순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조목교문」과 「조석교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다리의 부재를 임시 목교로 해소하고, 이후 재원이 마련된 시점에 석교를 설치한 계획적 실천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는 시기에 맞는 실천이야말로 참된 구제임을 강조하며, 불사의 추진이 단발적 시주가 아닌 점진적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교량 권선문은 동일한 불사와 고사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서술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는 권선문이 정형화된 틀 안에서도 작성자의

36) 無用秀演, 『無用堂集』下, 「斷橋募緣文」, “徒杠人獨過, 輿梁車大行, 則輿梁可乎. 木易朽, 石難壞, 則石可乎. 虹孔圓且大, 涇流雖涘而水之擊小, 則虹可乎. 石而虹而長且久, 則成之也, 勞費甚大, 非一人之獨任 非一日之可爲也.”

37) 蓮潭有一, 『蓮潭大師林下錄』3. 「關東萬歲橋重修文」, “鄭子産濟以乘輿, 不知爲政. 華亭誠挈乎鈞艇, 會要渡人, 雖救世以無殊, 在適時而有待.”

인식과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글쓰기임을 시사한다.

밥술은 사찰의 공양과 살림을 담당하는 데 필수적인 기물로, 교리적 상징보다는 실질적 필요가 앞서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권선문에서는 그 결핍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수신자가 그 필요성에 감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주역』에서 이르길, “정(鼎)은 원형리정(元亨利貞)이라. 누런 귀와 금 고리를 지닌, 삶고 익히는 그릇이다. 음의 귀와 양의 고리로 상제께 제사 드리고 성현께 제사 드리니, 술을 보시하는 복이 어찌 그 광대하지 않겠는가. 앞드려 바라건대 단신(檀信)들께서는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위없는 큰 과보를 심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에 봉축하노니, 우리 성군께서는 천년의 운수를 품으시고 백왕(百王)의 기틀을 세워서 오제(五帝)의 이름다움을 잇고, 삼황(三皇)의 성대함을 계승하실 것이다.<sup>38)</sup>

응운 공여의 「식정권선문(食鼎勸善文)」이다. 비교적 짧은 길이로 작성되었으며 술에 대한 상징적 정의로 시작해서 말미의 정형화된 결어로 구성되어 있어, 문학적 감흥이나 개별 작가의 창작적 감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문학적 성격보다는 의례문적 기능이 강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침굉 현변의 「주정권문(鑄鼎勸文)」을 살펴보자.

지금 선불장(選佛場)이 크게 열려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술이 망가져서 밥과 죽을 공양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술 적다 술 적다’ 하는 소리를 소쩍새(春禽)에게 분부하였더니, 소쩍새가 자꾸만

38) 應雲空如, 『應雲空如大師遺忘錄』, 「食鼎勸善文」. “易云, 鼎, 元亨利貞. 黃耳金鉉, 烹飪之器. 陰耳陽鉉, 以享上帝, 大享聖賢. 施鼎之福, 豈不其廣大乎? 伏願檀信, 以此良緣, 種無上之大果. 萬千祝手, 仍茲奉祝, 我於皇聖君, 膺千齡之運, 入百王之基, 蔡五帝之徽, 紹三皇之懋.”

중에게 울어 대는구나. 곧장 솔을 주조하고 싶으나, 약한 수레에 짐은 무겁고, 두레박줄은 짧은데 우물은 깊기만 해서, 널리 단문(檀門)에게 고하노니, 이 글을 보고서 부디 동참해 주기 바란다.<sup>39)</sup>

비교적 짧은 길이의 침필의 권선문은 승가고시로 인해 승려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시점에, 사찰의 공양을 책임지는 솔이 파손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권선문에서 강조되는 보시의 공덕이나 솔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양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당혹과 황망함이 중심에 놓여 있다. 전통 한시에서 소쩍새가 주로 슬픔이나 이별의 정서와 관련된 이미지로 소환되는 것과 달리, 이 글에서는 솔의 결핍을 알리는 현장감 있는 존재로 전환되어, 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준다.

이처럼 동일한 불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승려에 따라 서술 방식이나 표현의 뉘앙스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난다. 권선문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쓰인 글이지만, 그 안에서 각 승려의 불사 인식이나 창작 태도, 문장 감각에 따라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권선문은 하나의 정형을 따르면서도, 그 속에 개별 작가의 신앙과 표현의 개성이 스며든 글쓰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조선후기 간행 승려문집에 수록된 권선문은 수행자의 신앙 인식과 불교계의 현실 대응이 맞물린 산문 양식으로, 일정한 형식을 따르면서도 수신자와 불사 대상에 따라 다채로운 서술 방식과 문체적 표현을 보여준다. 본

39) 枕肱懸辯, 『枕肱集』 下, 「鑄鼎勸文」, “今夫選佛場之大開, 六合輻輳而靡靡漏缺, 饘粥之供, 吾未如之何. 鼎小鼎小之聲, 使以分付春禽, 春禽適以鳴僧也. 卽欲改鑄, 而弱輟載重, 短綆汲深. 普告檀門, 請暑斯文.”

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권선문의 문체와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전개 양상을 정리하였다.

권선문은 대체로 불사의 계기와 당위성, 보시의 권유, 회향과 축원의 흐름을 갖추고 있으며, 통용 권선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반면 개별 권선문에서는 경전 인용, 문답체 구성, 감응 서사 등 다양한 수사적 장치가 동원되며, 작성자의 인식과 수신자에 대한 고려가 문장 속에 반영된다. 특히 승려가 직접 발원자이자 화주로 나선 글에서는 수행과 생활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권선문의 의미가 구체화되고, 신앙 공동체 내부의 연대 의식도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권선문이 수행자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실천이 교차하는 글쓰기였음을 드러내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유교나 도교의 권선문과의 비교, 산문과 운문 형식의 차이, 혹은 교량이나 도로 수치와 같은 비불사적 권선문의 사례까지 검토함으로써, 권선문의 문학적 층위를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한국불교문화포털 (<https://buddhaland.dongguk.edu/>)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김대원, 「정부인 순창설씨에 관한 연구사 검토 및 그 과제」, 『서예학연구』 42, 한국서예학회, 2022, 5~31쪽.
- 김무봉, 「『상원사 중창 권선문』의 조성 경위에 대한 연구」, 『불교학연구』 30, 불교학연구회, 2011, 369~416쪽.
- 변양근, 『조선 초기 승려의 연화 활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04쪽.
-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2014, 367~413쪽.
- 유정열, 「최창대의 <유점사중건모연문>연구」,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79~102쪽.
- 이기범, 「<설씨부인권선문>의 조성 배경 고찰」, 『문화와예술연구』 17,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2021, 16~44쪽.
- 이대형, 「조선시대 승려문집의 문체와 내용별 특징」, 『동악어문학』 69, 동악어문학회, 2016, 171~197쪽.
- 이대형, 「17세기 승려 奇巖 法堅의 산문연구」, 『열상고전연구』 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321~349쪽.
- 이병희, 「고려시기 승려의 緣化활동」, 『韓國中世史論叢』, 이수건교수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 간행위원회편, 2000, 101~145쪽.
- 이진오,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7, 1~535쪽.
- 전영근, 「왕실 주관 불사 권선문의 조성과 운용」, 『서지학보』 30, 한국서지학회, 2006, 121~170쪽.
- 정병삼, 「18세기 승려문집의 성격」, 『동악어문학』 48, 동악어문학회, 2007, 87~117쪽.

## ABSTRACT

## Stylistic and Persuasive Strategies in Buddhist Exhortation Texts by Joseon Monks in the Late Joseon Period

Jeon, Sun-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stylistic and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Gwonsunmun (勸善文, Buddhist exhortatory texts) included in Seungnyeo Munjip (僧侶文集, Buddhist monastic anthologies)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During this time, amid the devastation caused by war and natural disasters, the restoration of temples and the promotion of Balsa (佛事, Buddhist public works) became pressing concerns for the Buddhist community. Gwonsunmun emerged as persuasive texts designed to solicit donations and justify the necessity of such religious endeavors. While these texts followed a relatively consistent structure—typically comprising the motive of the project, the sacred value of the target, exhortation to donors, and closing benedictions—they also reveal considerable variation depending on the author, recipient, and nature of the balsa. Through a comprehensive survey of approximately 200 Gwonsunmun texts preserved in 35 monk-authored collections, this study analyzes how Buddhist doctrinal references, narrative persuasion, and rhetorical techniques such as dialogue and karmic analogies were mobilized to suit different audiences. In particular, texts authored by monks often go beyond mere requests for support, articulating the initiator's spiritual intention and appealing to a sense of communal religious responsibility. Many of the authors were high-ranking monks actively involved in the actual execution of balsa projects, and their writings reflect both personal literary agency and the institutional concerns of the Buddhist monastic community. This study argues that Gwonsunmun functioned not only as practical documents for religious fundraising but also as literary expressions that intertwined

doctrinal conviction, lived religious practice, and collective engagement.

**Key Words** Gwonsunmun, Moyeonmun, Yeonhwamun, monk anthologies, Buddhist projects

논문투고일: 2025.07.17.

심사완료일: 2025.08.11.

게재확정일: 2025.08.13.

〈부록〉 승려문집 소재 권선문 목록

승려	문집	제목	분류	기타
1 청허 휴정	淸虛堂集 4	1 『원각경』중간 모연계 (圓覺經重刊募緣偈)	경전	偈
		2 모연문 (募緣文)	권선문	
	淸虛堂集 6	3 두류산 내은적암을 새로 짓기 위해 모연한 글 (頭流山內隱寂新構募緣文)	사찰암자	
		4 태백산 본적암을 수장하기 위해 모연한 글 (太白山本寂庵修粧募緣文)	단청 수장	
		5 만덕산 백련사 중창 모연문 (萬德山白蓮社重刊募緣文)	사찰암자	
		6 내은적 기와 모연문 (內隱寂蓋瓦募緣文)	기와	
2 사명 유정	四溟堂大師集 6	1 홍도원을 세우기 위해 지은 권선문 (洪度院造成勸善文)	사회기반(院)	
		2 개골산 홍성암의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지은 권선문 (開骨山興成庵造佛勸善文)	불상	
3 순명 경현	霽月堂大師集	1 보개산 석대암 중수 권선문 (寶蓋山石臺庵重修募勸文)	사찰암자	
4 기암 법건	奇巖集 3	1 임진년 강화부 총통과 탄자 주조 권선문 (壬辰年江華府鑄銃筒及彈子勸善文)	총통 탄자	
		2 천덕암 바라와불기 권선문 (天德庵鉢羅兼佛器勸善文)	법구/바라 불기	
		3 장안사 법당의 권선문 (長安寺法堂勸文)	전각,법당,누각	
		4 유점사 사천왕의 권선문 (楡岾寺天王勸善文)	불상/사천왕	
		5 표훈사 해회당의 권선문 (表訓寺海會堂勸善文)	전각,법당,누각	
		6 석이암의 권선문 (石耳庵勸善文)	사찰암자	
		7 권선문 (勸善文)	권선문	
		8 장흥사 아미타상의 개금 및 영산회상탱과 서방구품회탱의 중수를 권선한 글 (長興寺彌陀像改金靈山會幀西方九品會幀重修勸善記)	개금 탕화	
		9 사운당중수모연문 (四雲堂重修募緣文)	전각,법당,누각	
		10 장안사중창권선문 (長安寺重創勸善文)	사찰암자	
		12 삼장사 개와 권선문 (三藏蓋瓦勸善文)	기와	
11 주정 보연문 (鑄鼎普緣文)	술/불기			

			13	유점사 보광전 기단과 계단의 개축을 낙성하고 수륙재를 지내면서 권선한 글 (楡岾寺普光殿基陸改築落成水陸勸善文)	의례 수록제	
			14	금강산 유점사 산영루를 증수하며 권선한 글 (金剛山楡岾山暎樓重修勸善文)	전각,법당,누각	
			15	금강산 장안사의 법당을 조성하며 권선한 글 (金剛山長安寺法堂造成勸善文)	전각,법당,누각	
			16	통천군 독변로의 수치를 권선한 글 (通川郡獨邊路脩治勸善文)	다리 석교	
			17	여주 상두산 장흥사의 중창을 권선한 글 (驪州象頭山長興寺重創勸善文)	사찰암자	
			18	수장을 권선한 글 (修粧勸善文)	단청 수장	
5	영월 청하	詠月堂大師文集	1	물외암 권선문 (物外庵勸善文)	사찰암자	
			2	통용권문 (通用勸文)	권선문	
6	편양 언기	鞭羊堂集	1	보현법당권문 (普賢法堂勸文)	전각,법당,누각	
			2	보현법당 중건권문 (普賢寺法堂重創勸文)	전각,법당,누각	
			3	묘향산보현사만세루와권문 (妙香山普賢寺萬歲樓覆瓦勸文)	전각,법당,누각	
7	취미 수초	翠微大師詩集	1	취미당 권화소 (翠微堂勸化疏)	사찰암자	
			2	강진만덕산백련사만경루의권화소 (康津萬德山白蓮社萬景樓勸化疏)	전각,법당,누각	
8	허백 명조	虛白集	1	백련산 상승암 권선문 (白蓮山上乘菴勸文)	사찰암자	
			2	통용모연문 (通用募緣文)	권선문	
			3	석중 모연문 (石鍾募緣文)	승탑 부도	
9	침굉 현변	枕肱集	1	팔령산 지장암 단청 모연문 (八嶺山地藏庵丹青募緣文)	단청 수장	
			2	팔령산 능가사 대전 모연문 (八嶺山楞伽寺大殿募緣文)	전각,법당,누각	
			3	조계산 내은암 번와 권선문 (曹溪山內隱菴燔瓦勸善文)	기와	
			4	조계산 선암사 지장전 권선문 (曹溪山仙岩寺地藏殿諭善說)	전각,법당,누각	
			5	시루에 관한 설 (甌說)	술/불기	說
			6	송광사 하사당 증수 권문 (松廣寺下舍堂重修勸文)	전각,법당,누각	

			7	송광사 화엄전의 동서 협실과 정문의 권문 (松廣寺華嚴殿東西挾室與正門勸文)	전각,법당,누각	
			8	조불 권문 (造佛勸文)	불상	
			9	술을 주조하면서 권선하는 글 (鑄鼎勸文)	술/불기	
			10	선암사 능인전 중창 권문 (仙岩寺能仁殿重創勸文)	전각,법당,누각	
			11	선암사고법당중창유선시 (仙巖寺古法堂重創諭善詩)	전각,법당,누각	詩
			12	또 (又)	전각,법당,누각	詩
10	백곡 처능	大覺登階集	1	논산 석교를 중수하므로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 쓴 글(論山石橋重修諭善文)	다리 석교	
11	백암 성종	栢庵集	1	신흥사를 증진하는 권선문(重建神興勸文)	사찰암자	
			2	신흥사의 기와 굽는 가마를 만드는 권선문 (神興寺燒瓦窯勸文)	기와 /가마	
			3	전일암의 불기와 놋쇠술에 시주하라는 글 (錢日庵化供佛器鑄鎔文)	술/불기	
			4	봉갑사 천불을 조소하는 권선문(鳳(山/甲)寺雕塑千佛勸文)	불상	
			5	함평 용천사 숙석 보루와 섬돌의 권선문(咸平龍泉寺熟食石壘階勸文)	석축	
			6	낙안 남쪽에 다리를 잇는 권선문(樂安治南斷橋架橋梁勸善文)	다리 석교	
			7	경기도 양성 북쪽 소사의 석교 권선문(京畿陽城北素沙石橋勸文)	다리 석교	
			8	조계산 보조국사비와 부도전을 새로 세우는 권선문 (曹溪山普照國師碑浮屠殿新建勸善辭)	승탑 부도	辭
			9	구례 화엄사의 장륙전과 불상 조성의 권선문 (求禮華嚴寺重建丈六殿兼造像勸文)	불상	
			10	팔영산 능가사 팔상전 권연소 (八影山楞伽寺八相殿勸緣疏)	전각,법당,누각	疎
12	동계 경일	東溪集	1	적천사 시왕 조성 유선문 (積川寺十王造成諭善文)	불상/시왕	
13	월저 도안	月渚堂大師集	1	『화엄경』간행에 동참하여 선근을 지으라고 권유하는 글 (印華嚴經種善根文)	경전	勸詞
			2	표훈사 산영루를 새로 지으며 시주를 권하는 글 (表訓寺山映樓新建勸文)	전각,법당,누각	

			3	유점사 시왕상을 조성하기 위한 권문 (楡岾寺十王像造成勸文)	불상/시왕				
			4	평양 정수암 복신전 중창 모연문 (平壤淨水庵北辰殿重刑募緣文)	전각,법당,누각				
			5	동산사 불상 개금공덕 공양 보시를 권선하는 글 (東山寺佛像改金功德供養布施引勸說)	개금 탕화	說			
			6	봉은사 법당 불상을 조성하기 위한 권선문 (奉恩寺法堂佛像勸文)	불상				
			7	영명사 보현왕전을 개건하기 위한 모연문 (永明寺普現王殿開建募緣文)	전각,법당,누각				
			8	평양 지장사 자씨전을 보수 중창하기 위한 권선문 (平壤紙場寺慈氏殿修創勸文)	전각,법당,누각				
			9	『예념문』 1천 권을 인출하기 위한 권선문 (禮念文一千卷印出勸文)	경전				
			10	설암자 탑명 교화문 (雪巖子塔銘教化文)	승탑 부도				
			11	염불책 1천 권을 인출하기 위한 권선문 (念佛冊一千卷印出勸詞)	경전	詞			
			12	또 (又)	경전				
			13	또 (又)	경전				
			14	용천사 승당을 짓기 위한 권선문 (涌泉寺僧堂修建勸文)	전각,법당,누각				
			15	용강 화장사 큰 법당을 중창하기 위한 권선문 (龍岡華藏寺大法堂重創勸文)	전각,법당,누각				
			14	풍계명찰	楓溪集	1	가야산 보문암에서 수록재를 창건하기 위한 모연문 (伽耶山普門庵創建水陸募緣文)	의례 수록재	
						2	덕고산 백화암의 기와불사를 위한 권선명 (德高山白華庵蓋瓦勸善銘)	기와	銘
3	환적당의 부도를 세우기 위한 권선문 (幻寂堂浮屠勸文)	승탑 부도							
15	설암추봉	雪巖雜著 2	1	부사현 단교 권선문 (浮槎縣斷橋勸善文)	다리 석교				
			2	관음과 세지 두 보살의 그림을 보고 선을 권함 (繪畫觀音勢至二菩薩像勸善說)	탱화	說			
			3	염송전등설화 간행을 위한 모연문 (刊拈頌傳燈說話募緣文)	경전				
			4	순천부 영취산 홍곡사 보조국사의 탑을 세우고 비를 건립함에 관한 (順天府靈鷲山	승탑 비석				

			興國寺善照國師樹塔建碑勸文)						
			5	장육존상의 범왕과 삼장보살을 그림으로서 선을 권함 (丈六像梵王與三藏菩薩繪畫勸善)	탱화				
			6	금화산상암을다시창건하며선을권함 (金華山上菴重創勸善文)	사찰암자				
			7	안주 회암사 권문 (安州檜巖寺勸文)	사찰암자				
			8	향산 보현사 경판을 새기는 권선문 (香山普賢寺經板刻引勸文)	경판				
			9	또 (又)	경판				
			10	강동 소림사 중건 권문 (江東少林寺重建勸文)	사찰암자				
			11	화엄경 인쇄를 위한 경비요청 권선문 (印華嚴經求切價勸善文)	경전				
			雪巖禪師亂藁	12	명부와 옥황상제 진영을 위한 모연시 (冥府及玉帝眞像繪畫募緣詩)	탱화	詩		
			16	무용수연	無用堂遺稿	1	송광사 보광전의 단청을 보수하며 모연한 시 (松廣寺普光殿丹靨改新募緣詩)	단청	詩
						2	송광사 대웅전의 단청을 보수하며 모연한 시 (松廣寺大佛殿改新丹青募緣行)	단청	詩
3	영남로 곤양군 봉명산 직조암 신축 모연문 (嶺南路昆陽郡鳳鳴山直照庵新成募緣文)	사찰암자							
4	단교 모연문 (斷橋募緣文)	다리 석교							
5	태안사 봉서암 신축 모연문 (泰安寺鳳瑞庵新建募緣文)	사찰암자							
6	조계산 송광사 합청각 단청 모연문 (曹溪山松廣寺合淸閣丹靨募緣說)	단청				說			
7	태안사 삼일암 신축 모연문 (泰安寺三日庵新建募緣文)	사찰암자							
8	백운암 불전 모연문 (白雲庵佛殿募緣文)	전각,법당,누각							
17	무경자수	無竟集(文稿)	1	바라권선시 (鈇囉勸善詩)	법구/바라 불기	詩			
			2	석교 중수 권선문 (石橋重修勸善文)	다리 석교				
			3	십이원불을 조성하는 권선문 (造成十二願佛勸善文)	불상				
			4	송암사 개와 모연문 (崇巖寺蓋瓦募緣文)	기와				
			5	큰북을 조성하는 모연문 (造大鼓募緣文)	법구/북				

			6	천불의 그림을 그리는 모연문 (畫成千佛募緣文)	탱화				
			7	문수암 화불 권선문 (文殊庵畫佛勸善文)	탱화				
			8	수보 권선문 (脩補勸善文)	단청 수장 수보				
			9	불기 권선문 (佛器勸善文)	불기				
			10	불상 수보문 (佛像脩補文)	불상				
			11	괘불탱 권선문 (掛佛幀勸善文)	탱화				
			12	권선문 (勸善文)	권선문				
			13	송광사 연화당 중창 모연문 (松廣寺蓮花堂重創募緣文)	전각,법당,누각				
			18	허정 범중	虛靜集	1	금화산 정광사 개와권문 (金華山澄光寺蓋瓦勸文)	기와	
						2	금강산 유점사 중창권문 (金剛山楡岾寺重創勸文)	사찰암자	
						3	흥성암 중창권문 (興成庵重創勸文)	사찰암자	
						4	용강 번석교 권문 (龍岡翻石橋勸文)	다리 석교	
						5	묘향산 보현사 사천왕 중수권문 (香山普賢寺四天王重修勸文)	불상 사천왕	
6	안주전변 수륙권문 (安州川邊水陸勸文)	의례 수륙제							
19	상월 새봉	霜月大師詩集	1	묘향산 보현사 극락암의 영자각을 새로 짓기 위한 모연계 (妙香山普賢寺極樂庵影子閣新建募緣偈)	전각,법당,누각	偈			
20	함월 해원	天鏡集 下	1	안변고산석교권선문 (安邊高山石橋勸善文)	다리 석교				
21	호은 유기	好隱集	1	봉서사 권선문 (鳳棲寺勸善文)	사찰암자				
			2	범음각 권선문 (梵音閣勸善文)	전각,법당,누각				
22	설담 자우	雪潭集	1	개와를 권하는 글 (蓋瓦勸文)	기와				
			2	운주동의 불탑을 수리한 뒤 약사전을 중건하기 위한 권선문 (雲住洞佛塔修理後重建藥師殿勸善文)	전각,법당,누각				
23	야운 시성	野雲大禪師文集	1	권선문 (勸善文)	권선문				
			2	대승사대웅전단청권선문 (大乘寺大雄殿丹青勸善文)	단청				
			3	쌍계사적묵당중수모연사 (雙溪寺寂默堂重修募緣辭)	전각,법당,누각	辭			
24	월성 비은	月城集	1	추곡당 수석 권문 (秋谷堂樹石勸文)	승탑 비석				
			2	불기 권문 (佛器勸文)	불기				

			3	또 (又)	불기	
25	괄허 취여	括虛集	1	『화엄경』 권선문 (華嚴經勸善文)	경전	
			2	대승사 불상 개금 권선문 (大乘寺佛像改金勸善文)	개금 탕화	
26	연담 유일	蓮潭大師林下 錄 3	1	불상권선문 (佛像勸善文)	불상	
			2	불유모연문 (佛油募緣文)	등불 기름	
			3	불기모연문 (佛器募緣文)	불기	
			4	주종모연문 (鑄鍾募緣文)	법구/종	
			5	또 (又)	법구/종	
			6	북 모연문 (皮鼓募緣文)	법구/북	
			7	바라권선문 (鈇鏹勸善文)	법구/바라	
			8	가사권선문 (袈裟勸善文)	가사	
			9	관동만세교중수문 (關東萬歲橋重修文)	다리 석교	
			10	목교주조문 (造木橋文)	다리 석교	
			11	석교주조문 (造石橋文)	다리 석교	
27	몽암 기영	蒙庵大師文集	1	법전권문 (法殿勸文)	전각, 법당, 누각	
			2	개와권문 (蓋瓦勸文)	기와	
			3	가사권문 (袈裟勸文)	가사	
			4	주종권문 (鑄鍾勸文)	법구/종	
			5	대책권문 (大冊勸文)	경전	
			6	주기권문 (鑄器勸文)	불기	
			7	도배권문 (塗排勸文)	도배	
			8	상모권문 (像貌勸文)	불상	
			9	명등권문 (明燈勸文)	등불	
			10	통용권문 (通用勸文)	권선문	
			11	또 (又)	권선문	
			12	법전권문 (法殿勸文)	전각, 법당, 누각	
28	충허 지괘	冲虛大師遺集	1	권선문(1) (勸善文)	권선문	
			2	권선문(2) (勸施文)	권선문	
			3	권개와문 (勸蓋瓦文)	기와	
			4	또 한 수 (又一首)	기와	
			5	모연문 (募緣文)	권선문	
			6	청련암 권선문 (靑蓮庵勸善文)	사찰암자	
29	화악 지탁	三峰集	1	금강산만천교권선문초 (金剛山萬川橋勸善文草)	다리 석교	초고

30	응운 공여	應雲空如大師 遺忘錄	1	수충사 권선문 (酬忠祠勸善文)	사찰암자	
			2	적천사 옥련암 수리 권선문 (積川寺玉蓮庵修葺勸善文)	사찰암자	
			3	등축 권선문 (燈燭勸善文)	등불	
			4	염장 권선문 (鹽醬勸善文)	식자재 소금	
			5	불량 권선문 (佛糧勸善文)	식자재 곡식	
			6	불기 권선문 (佛器勸善文)	불기	
			7	밥술 권선문 (食鼎勸善文)	술/불기	
			8	산신각 권선문 (山神閣勸善文)	전각,법당,누각	
			9	칠성각 권선문 (七星閣勸善文)	전각,법당,누각	
			10	기와 권선문 (蓋瓦勸善文)	기와	
			11	개금 권선문 (改金勸善文)	개금 탕화	
			12	시왕 도분 권선문 (十王塗粉勸善文)	도분	
			13	나한 도분 권선문 (羅漢塗粉勸善文)	도분	
			14	가사 권선문 (袈裟勸善文)	가사	
			15	법당 중수 권선문 (法堂重修勸善文)	전각,법당,누각	
			16	다리 만들기 권선문 (作橋勸善文)	다리 석교	
			17	돌 쌓기 권선문 (石築勸善文)	석축	
			18	나한전 중수 권선문 (羅漢殿重修勸善文)	전각,법당,누각	
			19	주종권선문 (鑄鍾勸善文)	범구/종	
			20	바라 권선문 (鉢羅勸善文)	범구/바라	
			21	혼령을 천도하는 수륙재 권선문 (度魂水陸勸善文)	의례 수륙재	
			22	사찰 건립의 권선문 (新建寺刹勸善文)	사찰암자	
31	초의 의순	一枝庵文集	1	원불상 모연문 (願佛像募緣文)	불상	
			2	적련암 개금 모연소 (赤蓮庵改金募緣疏)	개금 탕화	疎
			3	미황사 상수암의 불상을 개금하기 위한 모연문 (美黃寺上岵庵佛像改金募緣文)	개금 탕화	
			4	불상 개금 모연문 (佛像改金募緣文)	개금 탕화	
			5	해인사 대웅전 및 대장각 중수 권선문 (海印寺大雄殿及大藏閣重修勸善文)	전각,법당,누각	
32	함홍 치능	涵弘堂集	1	몽음사 법당 개와 권선문 (夢吟寺法堂蓋瓦勸善文)	기와	
33	범해 각안	梵海禪師文集	1	대둔사무량회모연소 (大菴寺無量會募緣疏)	의례/무량회	疎
			2	서산대사 영각 다례 모연 소 (西山大師影	의례/다례	疎

			閣茶禮募緣疏)		
			3 무안 법천사 가사 및 천등 모연 소 (務安法泉寺架梁及千燈募緣疏)	가사 천등	疎
			4 여산 미륵사 중수 모연 소 (礪山彌勒寺重修募緣疏)	사찰암자	疎
			5 무량회 중수 모연 소 (無量會重修募緣疏)	의례/무량회	疎
34	의룡 체훈	義龍集	1 권선시 (勸善詩)	권선문	詩
			2 함홍당금고모연문 (含弘堂金鼓募緣文)	사찰암자	
			3 청풍당금고모연문 (淸風堂金鼓募緣文)	사찰암자	
			4 범어사 대웅전 후불탱화 모연문 (梵魚寺大雄殿後佛幀畫募緣文)	탱화	
			5 아미타불과 석가세존 탄일 모연문 (阿彌陀佛及釋迦世尊誕日募緣文)	의례/석탄일	
			6 범어사 명부전 중수 모연문 (梵魚寺冥府殿重修募緣文)	전각,법당,누각	
			8 범어사원효암염불모연문 (梵魚寺元曉庵念佛募緣文)	전각,법당,누각	
			7 원흥방 불상 장등 도배 모연문 (元興房佛像長燈塗排募緣文)	불상/장등/도배	
			9 사자암법당개와모연문 (獅子庵法堂蓋瓦募緣文)	기와	
			10 마하사 나한전 중수 모연문 (摩訶寺羅漢殿重修募緣文)	전각,법당,누각	
			11 대성암 본채 번와와 익랑 중수 모연문 (大聖庵體寮翻瓦翼廊重修募緣文)	전각,법당,누각	
35	우당	藕堂詩稿	1 수록혼 천도재 모연문 (水陸魂薦導齋募緣文)	의례수록재	

